



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에 대한 상반된 평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최근 인민은행(PBOC)의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에 대해 미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이 성장 전략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함.

- 중국은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를 묶어 두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4월 14일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$\pm 0.5\%$ 에서 $\pm 1.0\%$ 로 확대하였음.
 - 2007년 $\pm 0.3\%$ 에서 $\pm 0.5\%$ 로 확대한 이후 5년만의 조치임.
- 이번 조치는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용인하는 것으로 미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음.
 - 미국 재무장관은 대외 환경에 의존적인 성장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변동폭 확대는 매우 의미 깊고 기대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함.
 - Wall Street Journal은 중국이 최근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함.

■ 반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조치는 위안화 평가절상 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림.

- Deutsche Bank는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함.
 - 홍콩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거래하는 기업들은 환차손을 우려하여 더욱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HSBC는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가 반드시 위안화 가치 절상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장함.
 - 대중국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많은 국가의 무역상들이 위안화 절하 기초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함.

(Wall Street Journal, 4/17)